



부록 8g: 나실인과 서원 법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이 페이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재할 때에만 순종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들을 다루는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 [부록 8a: 성전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법](#)
- [부록 8b: 제사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c: 성경의 절기들 — 오늘날 어느 것도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d: 정결 법 — 성전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e: 십일조와 첫 열매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f: 성찬 예식 — 예수의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이었다](#)
- [부록 8g: 나실인과 서원 법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이 페이지\).](#)
- [부록 8h: 성전과 관련된 부분적·상징적 순종](#)
- [부록 8i: 십자가와 성전](#)

서원에 관한 법 — 특히 나실인 서원 — 은 토라의 어떤 계명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체계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성전과 제단과 레위 제사장직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서원들은 완수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서원들을 흉내 내거나 “영적으로” 바꾸려는 시도 — 특히 나실인 서원에 대한 시도 — 는 순종이 아니라 발명입니다. 율법은 서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끝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완성되어야 하는지를 정의합니다. 성전이 없으면, 토라의 어떤 서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율법이 서원에 대해 명령한 것

율법은 서원을 절대적인 엄중함으로 다룹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그 말은 구속력 있는 의무가 되어 반드시 약속한 그대로 이행해야 했습니다(민수기 30:1-2; 신명기 23:21-23).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서원의 이행은 단지 마음속 결심이나 상징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 그것은 행동과 예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의 관여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서원에는 감사제나 자원제 같은 제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서원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곧 그분의 제단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합니다(신명기 12:5-7; 신명기 12:11). 제단이 없으면, 어떤 서원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나실인 서원: 성전에 의존하는 법

나실인 서원은,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 행위는 흉내 낼 수 있어도, 오늘날에는 완수할 수 없는 계명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실인 서원을 자세히 설명하며, 분리의 외적 표징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유효하게 만드는 요구 사항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외적 표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도주와 독주 및 모든 포도 산물에서 자신을 구별함(민수기 6:3-4)
-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털을 자라게 함(민수기 6:5)
- 시체로 인한 부정함을 피함(민수기 6:6-7)

그러나 이런 행위들 자체가 나실인 서원을 만들거나 완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서원은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예물들을 드릴 때에만 완성되며, 그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됩니다:

- 번제
- 속죄제
- 화목제
- 소제와 전제

이 제사들은 서원의 필수적 결론으로 명령되었습니다(민수기 6:13-20). 이것들이 없으면 서원은 미완성으로 남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의미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연한 부정이 생기면 추가 제사들이 요구되므로, 성전 체계 없이 서원을 계속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민수기 6:9-12).

이것이 나실인 서원이 오늘날 존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몇 가지 외적 행동을 흉내 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그 서원에 들어가거나, 지속하거나, 끝마칠 수는 없습니다. 제단과 제사장직과 성소가 없으면, 나실인 서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남는 것은 인간의 모방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나실인 서원을 한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켰습니다. 서원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하고 부정을 피한 뒤,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예물들로 서원을 마쳤습니다. 우연한 부정이 생겨도, 그 서원을 “리셋”하기 위한 구체적 예물들이 필요했습니다(민수기 6:9-12).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마을 회당이나 개인 집에서, 또는 상징적 의식으로 나실인 서원을 완성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다른 서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에는 제사가 요구되었고, 제사는 성전을 요구했습니다.

왜 오늘날 이 서원들을 지킬 수 없는가

나실인 서원 — 그리고 예물을 요구하는 토라의 모든 서원 — 은 오늘날 완수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사라졌고, 제사장직은 봉사하고 있지 않으며, 성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원의 마지막이자 필수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토라는 나실인 서원이 예물 없이 “영적으로 끝났다”고 말할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토라는 현대의 교사들이 상징적 종결, 대체 의식, 사적 해석을 만들어 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이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를 정의하셨고, 그분은 순종의 수단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 오늘날 누구도 토라에 따라 나실인 서원을 할 수 없습니다.
- 예물을 포함하는 어떤 서원도 오늘날 이행될 수 없습니다.
- 이 서원들을 상징적으로 흉내 내는 어떤 시도도 순종이 아닙니다.

이 법들은 영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실 때까지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법들을 취소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서원에 관한 법을 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경솔한 서원을 피하라고 경고하셨지만(마태복음 5:33-37), 민수기나 신명기에 기록된 어떤 요구 사항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실인 서원이 낡았다고 하시거나, 서원이 더 이상 성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일(사도행전 18:18)과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 비용에 참여한 일(사도행전 21:23-24)은, 예수께서 서원 법을 폐하지 않으셨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가 요구한 그대로 서원을 완수해 웃음을 보여 줍니다. 바울은 사적으로나 회당에서 무엇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제단으로 갔습니다. 율법이 서원의 결론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를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나실인 서원이 무엇인지 정의하며, 토라에 따르면 어떤 서원도 하나님의 성소에서의 예물 없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상징적 순종은 불순종이다

제사, 절기, 십일조, 정결 법과 마찬가지로, 성전이 제거되면 우리는 이 법들을 “지킬 수 없기에 존중”해야 합니다 — 대체물을 발명함으로써가 아니라, 순종이 불가능한 곳에서 순종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입니다.

오늘날 머리를 기르고, 포도주를 끓고, 장례를 피함으로 나실인 서원을 흉내 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신 계명과 분리된 상징적 행위입니다. 성소에서의 예물 없이, 그 서원은 시작부터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징적 순종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는 성전이나 제단을 대신할 대체물을 발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두신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율법을 존중합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존중한다

나실인 서원은 거룩합니다. 서원 일반도 거룩합니다. 이 법들 중 어느 것도 폐지되지 않았고, 토라 어디에도 언젠가 상징적 관행이나 내적 의도로 대체될 것이라는 암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 우리는 나실인 서원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 예물을 요구하는 서원들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이루는 척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들을 존중합니다.

오늘날의 순종은, 여전히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며, 성소가 회복될 때까지 다른 계명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실인 서원은 율법에 기록된 채로 남아 있지만, 제단이 다시 서기 전까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